

2015년 제14차 소공동체 전국모임 최종 선언문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마태 12,48)

소공동체와 가정

1. 머리말

1.1. 제14차 소공동체 전국모임이 2015년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 아론의 집에서 13개 교구, 평신도 162명, 수도자 20명, 부제 11명, 사제 21명, 주교 2명을 포함하는 총 216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공동체와 가정’에 관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1.2. 금번 소공동체 전국모임은 오늘날 현대 세계가 처한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한 가정을 소공동체가 어떻게 지지하고 격려하며 동반할 수 있을지 살펴 보며 2015년 제14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토론 주제가 될 ‘가정사목과 복음화’에 응답하고자 마련되었다.

1.3. 이에 따라 이번 전국모임에서는 한국사회의 가정 현실에 대한 실태와 각 가정이 처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가정과 소공동체 관계에 대한 사목적인 성찰과 다양한 복음나누기 방법을 통해 가정에 대한 나눔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가정을 위한 본당과 소공동체의 역할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모범 본당들의 사례를 경청하고 가정과 소공동체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였다.

2.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정의 현실과 문제들

2.1.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가정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인간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인류 공동체의 기반이며 못자리인 가정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가난, 노동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만연하는 왜곡된 성 문화와 혼인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을 붕괴시키면서 인류 공동체마저 위협하고 있다.

2.2 한국사회 역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더 크고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정책의 가속화는 고용불안과 실업,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지나친 경쟁이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등은 가정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2.3 또한 우리 사회에 팽배해진 개인주의와 쾌락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왜곡된 환경은 가정불화와 이혼율 증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청소년 문제, 1인가구 및 독거 노인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서적 안정과 유대를 나누어야 할 가정 공동체를 붕괴시켜 가고 있다. 사회의 기반인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 한국사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기초인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는지를 반증하고 있다.

3. 가정 교회와 소공동체

3.1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정은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배우는 장소”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복음의 기쁨 66항)라고 하였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설정한 공동체의 원천이고 한 인격이 사회와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양성하는 배움터로서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학교”(사목 헌장 52항 참조)인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역시 미래의 복음화는 가정 교회에 달려있다고 보시며 세상 복음화의 출발점인 “가정을 위한 사목적 배려를 강화하고 개발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가정공동체 65항)고 가르치고 있다.

3.2 우리는 세상 복음화의 출발점으로서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가정은 복음화의 주체이며 대상인 “가정 교회”(교회헌장 11항 참조)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깊이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소공동체와 가정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3.3 소공동체는 가정에 공동체 정신을 불어넣고 말씀으로 이웃 가정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써 가정 교회가 되게 한다. 가족 구성원들은 소공동체에 참석함으로써 대화와 소통, 배려와 사랑의 가정 공동체의 삶을

배운다. 또한 말씀을 읽고 나누며 가정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써 이들은 이웃 공동체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 이로써 “하느님의 말씀은 부부와 가정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도전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식별을 위한 빛”(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총회 보고서 34항)이 된다. 가정은 소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생활을 경축하고 봉헌함으로써 가정 교회가 되고, 소공동체는 가정들과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 교회의 현존을 드러내게 된다.

4.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4.1 오늘날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가정 현실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사회에 특별히 상처 입고 고통받는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시선(요한 4,1-30; 8,1-11 참조)과 사목적 회심(루카 10,29-37)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고 관심과 배려로 동반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4.2. 특별히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이혼의 증가 등으로 나홀로가족, 재혼부부의 복합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독거하는 노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 사회의 ‘신(新)가족들’을 동반하기 위해 소공동체가 이들과 함께 할 대안적 가족 공동체임을 본당 사례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가정 공동체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뿌리내릴 새로운 토양을 소공동체가 제공하게 된 것이다.

4.3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하고 반문하셨다.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참가족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다.(루카 8,21 참조) 우리 사회의 가정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우리 사회의 ‘신가족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참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 소공동체는 이웃의 다양한 가족들을 초대하여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하느님의 새로운 참가족이 되고자 한다.

5. 과제와 제안

5.1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여 본당 사목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이고 개인 중심 위주의 본당 중심 사목에서 소공동체와 가정 친화적인 사목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5.2 이웃 가정들과 함께 하는 소공동체는 가정들에게 길동무가 되어 함께하며 돌보고 성장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본당은 소공동체에서 가정을 돕고 동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3 우리 사회에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신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당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일 다양한 형태의 소공동체 모임을 구성하여 하느님의 참가족으로 살도록 이들을 돕고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6.1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수많은 가정들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다.

6.2 아울러 이 땅의 부서지고 상처 난 가정들을 기억하며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 안에서 다시 한 번 참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야 했던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써 온 인류의 모범인 하느님의 참가족, 성가정이 되었음을 우리는 목상한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가정들, 특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예수, 마리아와 요셉의 성가정처럼 하느님께 봉헌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하느님의 참가족이 되기를 간구한다.

2015년 9월 16일

제14차 소공동체 전국모임 참가자 일동